

2020년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출장자료

【 목 차 】

I. 과테말라 국가개황	1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6
III. 한국과의 교역동향	10
IV. 현지 체류정보	13
V. 상담시 참고사항	24





I. 과테말라 국가개황

국 가 명	과테말라공화국(República de Guatemala)	
위 치	중미북부(북쪽으로는 멕시코, 남쪽으로는 엘살바도르와 접경)	
면 적	108,889km ² (내수면 460km ² 포함) * 남한(100,295km ²)과 거의 유사	
기 후	아열대성(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1,500m 고산지대로 연평균 20~22℃의 상춘 기후 형성)	
수 도	과테말라시티(Ciudad de Guatemala)	
인 구	1,807만명 ('20년 전망)	
주요도시 (인 구)	과테말라시티(92만명, 수도권 357만명), 비야누에바(43만), 믹스코(47만), 꼬반(21만), 께찰떼낭고(18만), 에스킨뜰라(16만) 등	
민 족	라디노(혼혈 56%), 마야(42%), 기타(가리푸나, 신카, 외국인 등2%)	
언 어	스페인어(기타 약 23개의 토착언어 존재)	
종 교	가톨릭(70%), 기독교(30%), 기타 토착종교 등	
건 국 일	1821년 9월 15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Alejandro Giammattei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20.1.14 취임)	
명목 GDP*	743억U\$('20년 전망)	
실질경제성장률*	3.8%('19년)	
1인당GDP*	명목: 4,151U\$ PPP: 7,883U\$ ('20년 전망)	
실 업 율	2.5%('19년) (과테말라통계청 '20.9월 조회기준)	
물가지수*	3.4%('19년)	
화폐단위	Quetzal(Q/ 께찰)	
환 율	1U\$ = 7.78602Q. ('20.9.30 과테말라중앙은행 기준환율)	
외환보유고*	159억U\$ ('20년 전망)	
산업구조	도소매업(19.2%), 제조업(13.8%), 농림수산업(9.4%), 부동산(8.3%), 건설(5.2%), 교육(4.7%), 공공행정 및 국방 등(4.3%) 순 (과테말라중앙은행 '20.9월 조회기준)	
교역규모	(수출) 99.7억U\$ / (수입) 180억U\$ ('19년)	
대 한 교역규모	(한->과테말라) 222백만U\$('19년, FOB기준) (과테말라->한) 64백만U\$('19년, CIF기준) (KITA 기준)	

* 출처 : EIU('20.9 조회 기준), 기타 출처 별도 명시



☐ 과테말라 전도(全圖)



1992 MAGELLAN Geographics/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 과테말라 주요 현안

- 2020년 1월 지아마테이 신정부가 수립되면서 과테말라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지아마테이 신정부는 투자환경 개선, 수출 및 관광 수익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 법적 안정성 추구, 일자리 창출을 약속. 다만,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과테말라에서도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 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됨
- 과테말라는 자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다수 국민의 영양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사전적 대응을 실시함.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전격적으로 전국적인 조업 중단을 선언하였고 경제부의 특별허가를 취득한 일부 마킬라, 콜센터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전면적인 휴업 혹은 재택근무를 시작함. 학교, 대중교통, 다중밀집시설(쇼핑몰) 운영은 전면 중단 되었고, 식당의 경우 홀 서비스는 전면 금지되었으며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만 허용
 - 2020년 6월, 과테말라 제조업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참여자의 79%가 매출에 영향을 받았으며 63%의 응답자가 유통망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이는 각종 이동제한 조치(야간통행금지, 주말 통행금지, 이부제 등), 비필수업종 지정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함
 - 또한 74%의 기업들이 유동성 감소를 겪고 있는 반면 47%의 기업들은 고정경비를 코로나 19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함
 - 응답자의 76%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84%의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 11%는 휴직 계약 중으로 경제가 재개되면 다시 복직 예정이며 4% 가량만 해고한 상황이라고 함
- 전체적으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과테말라 인구의 2/3가 수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설문조사 기관 Prodatos) 미국발 가족 송금에 월세, 식품 구입 등 기초 소비를 의존하던 계층 역시 소득에 타격을 입어 전반적인 소비



둔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0년 4월, 미국의 대본국 송금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였고 대본국 소비재 발송량도 약 70% 감소한 것으로 밝혀짐.

- 코로나 19로 인해 과테말라 내에서의 조업이 중단된 것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과테말라의 주요 교역파트너인 미국의 코로나 19 상황도 과테말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 과테말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은 대부분이 미국 바이어 오더 베이스인데 미국에서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바이어들의 오더 취소, 선적 연기 등이 잇달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약 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수출은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
 - 일부 공장은 유희 라인을 마스크 생산, 방호복 생산 등에 투입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생산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6월 초부터 미국 바이어 오더가 일부 회복되고 있으나 과테말라의 코로나 19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이웃 국가와는 달리 점진적 경제 재개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임
-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2020년 과테말라 경제성장율을 -1.5~0.5% 수준으로, 2021년에는 3.5~4.5%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해외 이민자의 대본국 송금은 전년 대비 -9%, 수출 -8%, 수입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과테말라 향후 경제 전망

- 코로나 19의 확산이 억제되고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 될 경우, 국내 생산 활동 재개, 외부 환경 개선 등으로 과테말라 경제는 2021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전망. 미국 고용환경이 개선되며 이민자의 본국 송금이 증대되고, 의류 산업 등 수입 수요가 회복 될 경우에는 과테말라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가 촉진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국경 이동이 자유화 될 경우, 외부 관광객이 다시 유입되며 서비스업의 회복 기대 가능. 다만,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제재 조치가 장기화 되거나 2차 웨이브가 올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아마테이 신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도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되면 재개 될 수 있을 것. 신정부에서는 민관합동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각종 사회기반시설, 통신 서비스 등에 꾸준히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과테말라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고스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그 동안 계류되었던 보건 인프라 관련 각종 국제금융기구 차관 사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음. 성장세에 있는 과테말라 건설 부문 역시, 코로나 19로 잠시 주춤했으나 경제 재개 시 고용 효과가 높은 건설 부문은 우선적으로 조업이 허용될 전망으로 과테말라 경제 회복을 견인 할 수 있을 것임.
- GDP의 12%를 차지하는 가족 송금이 예년보다 감소하겠지만 국내 수요 감소, 낮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쇄되며 물가 인상율은 과테말라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는 3~5% 이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환율 역시 주요 외화 수입원인 가족 송금, 수출, 관광 수입 감소가 환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과테말라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 통합 수준이 낮은 관계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낮은 송금액 유입과 달러에 대한 수요 증대가 케찰 평가 절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 시장특성 및 경제동향

- **(교역환경) 중미시장 진출 교두보이자 역내 최대 소비시장**
 - 중미 6개국 중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미시장의 관문이자 테스트 마켓임. 과테말라는 중미 전체 GDP의 28%, 총 수입액의 25% 차지함
 - 과테말라의 경우 최종 서명에서 제외되었으나 파나마에서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FTA 추가 가입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평균 관세율 2.7%의 높은 무역개방도를 갖춘 개방 시장이며, 중미공동시장 (CACM) 회원국(5개국) 간 역내 원산지제품 무관세 교역 시행하고 있음. 또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지역 통합을 위해 노력 중임

- **(사회환경) 치안불안, 대미의존, 빈곤 등 사회적 불안정성 내포**
 - 과테말라를 비롯한 인근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모두 세계 최상위권 피살을 기록하고 있어 치안 불안이 기업 활동 및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지목됨. 다만, 최근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의 강력 범죄가 점차 감소하며 개선되고 있는 상황
 - 교역 및 외환 유입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특히 '19년 대미의존도는 수출 32%, 수입34%에 달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가족송금액은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이민 정책이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 **(투자환경) 정부·산업계의 수출·임가공업 경공업 진흥정책 지속**
 - 봉제업(임가공)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주력업종이며, 미국·인근시장의 생산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이 생산거점 이동을 고려할 경우, 미국과 근접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금융 시스템을 갖춘 과테말라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다만, 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인프라 개선, 세제 혜택 제공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



□ 과테말라 교역동향

- 과테말라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1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7년 들어 다시 8%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주요 수출품인 커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 규모 유지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수출입동향>

구 분	2018	2019	2020.7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백만U\$)	10,769	11,175	6,562	0.08
수 입(백만U\$)	19,699	19,882	10,132	-11.12
교역수지(백만U\$)	-8,930	-8,707	-3,570	-26.28

* 출처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9 확인)

- 2019년 기준, 국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34%), 중국(15%), 멕시코(11%) 등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은 11% 차지
 - 중국은 '17년부터 멕시코를 제치고 과테말라의 제 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19에는 전년대비 수입액이 39%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7 기준 코로나 19로 전체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대 중국 수입은 전년대비 13% 증가
- 인접한 FTA체결국(미국, 멕시코 등), 중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역내국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제조 강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편이나, 대한 수입은 근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입규모>

순 위	국 가	년도별 수입액(백만U\$)			비중(%)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7	2018	2019	2020.7	
1	미국	7,466	6,742	3,079	37.90	33.91	30.39	-24.43
2	중국	2,157	2,997	1,761	10.95	15.07	17.38	12.87
3	멕시코	2,134	2,211	1,173	10.83	11.12	11.58	-7.18
4	엘살바도르	1,025	845	384	5.20	4.25	3.79	-27.67
5	코스타리카	658	586	305	3.34	2.95	3.01	-11.51



순위	국가	년도별 수입액(백만US\$)			비중(%)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7	2018	2019	2020.7	
6	일본	265	479	270	1.34	2.41	2.67	20.91
7	독일	276	418	230	1.40	2.10	2.27	13.47
8	콜롬비아	528	574	223	2.68	2.89	2.20	-29.58
9	온두라스	414	376	200	2.10	1.89	1.97	-13.90
10	대한민국	291	323	186	1.48	1.63	1.84	8.89
총계		19,699	19,882	10,132	100.00	100.00	100.00	-11.12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9)

- 수입대상국 별로 품목이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화석 연료 수입에 약 38%가 집중되어 있으며 휴대전화·곡물·자동차 등이 그 뒤를 차지함. 중국에서는 예년과는 다르게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 기기와 타이어, 오토바이 등 다양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의 수입은 전기·의약품·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 편임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10대 수입품목>

순위	품목 (HS)	년도별 수입액(백만US\$)			비중(%)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7	2018	2019	2020.7	
1	석유화학제품(2710)	2,474	2,505	911	12.56	12.60	8.99	-39.84
2	휴대전화(8517)	627	736	379	3.18	3.70	3.74	-5.73
3	의약품(3004)	527	541	326	2.67	2.72	3.22	6.02
4	승용차(8703)	568	557	247	2.88	2.80	2.44	-21.69
5	옥수수(1005)	236	281	194	1.2	1.41	1.91	29.63
6	화물차(8704)	371	383	172	1.88	1.93	1.7	-18.51
7	조제식품(2106)	244	261	151	1.24	1.31	1.49	1.13
8	판지(4804)	281	243	149	1.43	1.22	1.47	1.06
9	살충제(3808)	179	166	125	0.91	0.84	1.23	22.54
10	석유가스(2711)	364	299	123	1.85	1.51	1.21	-31.35
계		19,699	19,882	10,132	100	100	100	-11.12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9)

- 과테말라 수출국은 DR-CAFTA에 힘입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5.7%), 이어 중미 역내시장(31.5%), 멕시코(4.7%) 등 인근시장에 집중



- 수출 품목은 농산물과 의복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5대 상위 품목 모두 농산물이 차지.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는 '18년 니카라과 정치 불안정 사태 장기화로 오더 물량이 몰려 반사이익을 얻었으나 '19년에는 감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출규모>

순위	국가	년도별 수출액(백만U\$)			비중(%)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7	2018	2019	2020.7	
1	미국	3,847	3,605	2,082	35.72	32.26	31.72	-4.2
2	엘살바도르	1,335	1,384	712	12.40	12.38	10.85	-9.26
3	온두라스	847	1,004	548	7.87	8.98	8.36	-3.54
4	니카라과	541	550	372	5.02	4.92	5.67	21.90
5	코스타리카	429	429	263	3.99	3.84	4.01	5.74
6	멕시코	507	553	261	4.71	4.95	3.98	-2.56
7	네덜란드	357	295	199	3.32	2.64	3.03	11.33
8	사우디아라비아	125	192	173	1.16	1.72	2.64	57.50
9	캐나다	164	224	145	1.52	2.00	2.21	6.35
10	파나마	243	245	130	2.26	2.19	1.97	-7.70
20	대한민국	69	46	55	0.64	0.42	0.84	88.31
총계		10,769	11,175	6,562	100	100	100	0.08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9)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10대 수출품목>

순위	품목 (HS)	년도별 수출액(백만U\$)			비중(%)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7	2018	2019	2020.7	
1	바나나(0803)	896	938	561	8.32	8.39	8.54	3.39
2	카르다몸(0908)	434	648	552	4.03	5.79	8.41	55.69
3	커피(0901)	681	664	534	6.32	5.94	8.14	1.79
4	사탕수수당(1701)	633	695	423	5.88	6.22	6.45	4.24
5	팜유(1511)	448	394	192	4.16	3.52	2.92	-6.42
6	합금철(7202)	153	241	157	1.42	2.15	2.39	6.41
7	남성용 상의(6105)	312	277	149	2.90	2.48	2.27	-6.53
8	의약품(3004)	209	232	145	1.94	2.08	2.21	8.71
9	여성용 상의(6106)	288	258	139	2.67	2.31	2.12	-10.21
10	저지 등 편물(6110)	298	323	138	2.77	2.89	2.11	-29.87
계		10,769	11,175	6,562	100	100	100	0.08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9)



Ⅲ. 한국과의 교역동향

□ 한국의 대과테말라 교역동향

- 과테말라의 대한수입액은 '20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감소세(-9%)를 보이고 있음. 이는 주력 수입 품목인 승용차(8703), 편직물(6006),의 수입 감소에 기인함
 - 특히 과테말라에서 3월부터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각종 이동제한 조치, 쇼핑몰 영업중단으로 인한 국내적 요인, 미국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소비 수요 감소, 미국 내 단기 일자리 상실로 인한 가족송금액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와 생산 감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

<최근 3년간 한국-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8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한국→과테말라(천U\$, CIF기준)	237,029	221,844	128,220	-9.0
과테말라→한국(천U\$, FOB기준)	66,908	63,838	52,973	29.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 봉제부자재(면사·합성섬유·염료), 기계류 등 내구재와 산업재에 집중되어 있음.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강세품목의 한국산 선호도는 꾸준하나, 중국·멕시코 등 경쟁국의 시장점유율도 지속 증가 추세임
 - 승용차의 경우, 매년 수입물량은 18~19만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신차와 중고차 별로 주요 수입국가가 변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아시아 및 중남미에서 생산공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임.
- 2020년에는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K-방역의 성공에 힘입어 각종 백신, 의약품, 진단키트 등의 수출은 증가 추세이며, 알로에 음료로 대표되는 음료수 분야의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품목(상위 15개 품목), 천U\$, %>

순위	품목 (HS)	2019	증감률	2020.8	증감률
1	화물차(8704)	14,567	-0.9	11,070	15.0
2	승용차(8703)	23,109	-17.8	10,875	-32.6
3	면역혈청·백신 등 (3002)	2,975	-40.8	8,471	363.4
4	기타 편직물(6006)	20,225	1.4	6,461	-36.0
5	형강(7216)	8,914	62.9	6,321	104.5
6	합성유기착색제(3204)	11,601	-1.8	6,045	-30.2
7	음료(2202)	7,819	55.5	4,320	-16.2
8	승합차(8702)	13,101	14.6	3,492	-62.5
9	엔진(8412)	1	260.3	3,416	0.0
10	축전지(8507)	7,423	23.3	3,396	-30.0
11	에틸렌중합체(3901)	3,001	-37.4	2,571	9.7
12	면사(5206)	1,911	-34.2	2,518	83.2
13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염료 (3809)	3,564	0.3	2,427	12.1
14	레이블,배지 등(5807)	6,712	25.8	2,386	-42.6
15	진단시약(3822)	214	-55.4	2,328	1,610.4
	계	221,844	-6.4	128,220	-9.0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입품목(상위 10개 품목), 천U\$, %>

순위	품목 (HS)	2019	증감률	2020.8	증감률
1	커피(0901)	27,324	-1.9	23,706	46.2
2	바나나(0803)	15,663	-1.0	8,265	-23.6
3	사탕수수당(1701)	114	269.6	6,155	5,756.8
4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7404)	4,652	306.7	3,833	45.4
5	일차전지축전지웨이스트&스크랩(8548)	6,381	-16.1	3,094	-20.9
6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7602)	3,686	2.2	2,876	9.5
7	티셔츠(6109)	1,885	28.9	2,457	57.7
8	카드다름(0908)	409	100.2	349	13.1
9	의류와의류부속품(4203)	693	-1.0	345	3.2
10	과중용종자·과실·포자(1209)	261	17.8	341	77.5
	계	63,838	-4.6	52,973	29.6

* 출처 : 무역협회



□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

- 봉제업종과 관련된 중·소규모 임가공업체가 주종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지사를 설립, 운영 중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적·편직·직조, 무역 등 총 120여개의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임
-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과테말라 직접투자 신고건수는 '89년 37건, '00년 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복, 섬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법인수 86%, 투자금액 84%)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80-'20.6년 누계) 단위: 천불>

업종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건설업	3	32.12	20.22
부동산업	1	1.20	1.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30	-
숙박 및 음식점업	2	0.33	0.23
제조업	86	209.02	117.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0.50	0.16
기타 제품 제조업	2	2.05	1.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5	39.96	18.20
그 외 기타 섬유제품	0	0.00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	0.01	0.01
날염 가공업	1	0.50	0.05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	3.01	2.86
편조원단 제조업	2	0.36	0.25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0	36.08	15.0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0.37	0.3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3	164.55	95.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	1.59	1.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02	0.01
총합계	93	242.99	138.64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9월)



IV. 현지 체류정보

1. 입국 요령

□ 입국 심사

- 한-과테말라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90일간 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 비자 연장은 과테말라시티 Zona4에 위치한 이민국(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에 방문하여 당일 조치 가능
- 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신고서 중 1부(흰색)는 입국 심사 시에, 다른 1부(노란색)는 세관 검사 시 회수하므로, 마지막 세관 통과까지 소지 필요
- 특히, 짐표(Luggage Tag)는 수화물 도난 예방조치로 공항직원이 육안 확인 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함

□ 코로나 19 특별 입국 비자

- 코로나 19로 2020년 3월 17일부터 외국인의 과테말라 입국이 금지되었으나, 과테말라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과테말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
 - 과테말라를 방문 희망자는 항공기 운항 및 착륙 허가신청서(전세 항공기 이용시), 입국자 명단 및 신분증, 건강진단서, 코로나 19 검사 증명서 등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 제출하여 특별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다만, 국경폐쇄조치는 유효해 미-과, 멕-과 비정규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멕시코에서 육로로 입국해야 함
 - 특별비자로 입국 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에 격리되어야 하는데,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양성 판정 시 과테말라 국내법에 따라 격리 및 치료. 입국 시 별도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없이 바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필요시 과테말라 내 통행증을 발급받아 전지역 방문 가능



□ 세관 검사

- 전반적으로 세관심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짐이 많거나 박스포장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입국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녹색등은 면제, 적색 점등시 엑스레이 검사하는 무작위 선별 형태로 세관 시스템 변경
- 과거 대통령이 연루된 세관 비리 사건이 있어 세관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참물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세관원이 내용물과 세관신고서 작성내용을 직접 대조하고 오류 발견 시 벌금을 물리거나 과세하기도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함
- 이를 대비하여 샘플은 반드시 인보이스와 함께 해당상품에 어떠한 형태로든 'Sample(서어 : Muestra)'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음

□ 1만 US\$ 이상 고액현금 소지 관련

- 합계금액 1만US\$ 이상의 현금과 유가증권(여행자수표, 상품권 등 포함) 지참 상태로 입출국 시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과태말라는 미신고 고액현금 휴대를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하며, 자금세탁 범 죄는 주재국에서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
 - 향후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 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공항 출국장(대합실)

- 세관 검사장을 지나면 외부인의 출입이 일부 제한된 홀이 나오며, 이곳에 공항 택시, 렌터카 부스 등이 위치함. 입국장 출구를 나서면 바로 주차장과 연결되며 잡상인이 많은 관계로 차량 또는 사전에 약속된 안내인이 확인될 때 까지 주의해야 함. 특히 출국장에서도 출구가 좌/우로 나뉘므로 사전에 어느 포인트에서 만날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



2. 날씨 및 복장

□ 현지 날씨

- 과테말라시티는 해발 1,500m 고원에 위치해 있어 연평균 20 ~ 22℃ 내외의 상춘기후 유지(한국의 5월 기후와 유사). 반면, 저지대 또는 해안가는 연중 내내 뜨겁고 무더운 열대성 기후
- 계절로는 크게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구분되며 통상 건기가 쾌적
 - 건기의 끝자락인 3~4월의 기온이 가장 높고(섭씨 30℃내외 까지도 상승) 우기로 들어서면서 다시 선선해지는 기후 특성을 보임

<2019년 과테말라시티(Aurora측정소) 기온 및 강수량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저기온(℃)	13.6	15.1	15.6	17.3	18.8	17.0	16.8	16.4	16.9	16.1	14.4	13.7
최고기온(℃)	23.1	24.1	24.1	27.0	24.9	25.2	25.7	25.8	25.6	24.2	23.9	23.3
평균기온(℃)	18.6	20.4	20.1	22.1	21.6	20.6	21.3	19.7	20.7	19.5	19.1	18.2
강수량(mm)	2	12	3	7	293	235	103	212	237	65	0	0

* 출처 : INSIVUMEH(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orologia e Hidrologia)

□ 복장

-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하복 또는 얇은 춘추복 위주로 준비하면 무난
 - 단, 해안가 또는 저지대 방문계획이 있는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여름옷을, 1~2월 방문 시에는 저녁이 몹시 쌀쌀해지기도 하므로 늦가을용 외투 지참
 - * 단, 저지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이 안전

3. 결제수단 및 환전

□ 결제수단

- 미화는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호텔, 관광업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소액의 현지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좋음. 대개의 상점에서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등 주요 카드로 결제 가능하나 일시적인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함



□ 환전

- 공항 내 환전소는 적용환율이 매우 불리하며, 따라서 호텔 데스크 또는 숙소 인근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환전 시 신분증(여권) 지참 필수)

* BI은행 현지화(께찰 또는 Quetzal) 매수환율('20.6.24) : 1 US\$ = 7.56 Quetzal

4.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 교통편

- (일반) 대중교통체계가 낙후되어있고 버스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 이용이 바람직
- 택시강도가 성행하므로 거리에서의 일반택시 탑승은 매우 위험하고 필히 콜택시, 호텔택시 또는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최근에는 우버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관계로, 배정된 운전자의 이력을 살펴 운행 이력이 적거나 너무 최근부터 우버 운행을 시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음

* (콜택시업체) Amarillo Express(+502-2470-1515)

- (공항) 대개의 호텔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공항↔호텔 간 이동 시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 그렇지 않은 경우 공항에 정식 등록된 조합택시(AirporTaxi)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부스는 세관 통관 후 입국장 출구 우측에 위치. 택시부스에서 목적지를 알려주면 금액이 기재된 티켓을 발급하며, 입국장 출구 정면에 대기 중인 흰색택시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탑승하는 방식

* (요금) Zona 10(호텔존) 70께찰 전후, Zona 7(한인타운 인근) 100-120께찰 전후(미화는 택시부스에서 선결제하거나 탑승 전 택시기사와 상의 필요)

-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부스 상주직원이 없는 관계로 입국장에 대기 중인 공항택시에 바로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호텔에 미리 연락해 호텔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치안

-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도심에서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절도·도난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야간 단독외출 뿐 아니라 도심에서의 주간 단독보행 또한 금하는 것이 좋음
 - * (사례)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오전 11시경 한인여대생이 Zona10 번화가를 보행하던 중, 이면주차 차량에서 권총강도 2명이 하차, 현금·휴대폰 등을 강탈·도주
- 차량 이동의 경우에도 신호대기 또는 교통정체 중일 때가 가장 취약한데, 다인조 오토바이 강도가 차량 양옆으로 접근하여 총기 협박 후 갈취하는 방식이 일반적
- 따라서, 외출 시 과도한 현금이나 고급시계, 귀중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량 내부에 있더라도 휴대전화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함
- 특히 총기 소지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일상화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강도의 요구에 절대 순응하고 반항하지 않아야 함

□ 자연재해

- 과테말라시티 주변에 활화산 3개가 있고 크고 작은 분출이 수시로 발생
 - 사까떼삐삐게스(Sacatepequez)주 안티구아(Antigua)시에 인접한 후에고(Fuego) 화산*이 '18년 6월 3일 크게 폭발, 쇄설류가 아랫마을을 덮쳐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시티로 화산재가 확산되면서 La Aurora 국제공항 일시 폐쇄(당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유지)
 - * 과테말라시티에서 직선거리로 남서서 방향 약 40km 거리에 위치
- 또한 남서연안을 따라 카리브판과 코코스판이 만나는 단층대가 가로지르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며, 수도에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인지할 정도의 흔들림이 자주 관찰
- 자연재해로 갑자기 공항이 폐쇄되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들은 취소에 따른 변상이나 숙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장 시 비상금이나 속옷 등을 여유 있게 챙기는 것이 좋음



- 상황 발생 시 현지에서는 대체항공편 검색, 재발권이 매우 어려워지는바, 만약을 대비하여 24시간 대응이 수월한 여행사를 통해 발권하는 것이 안전
- * 취항 항공사 대부분 예약 변경 접수가 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어 전화 폭증 시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되는 편

□ 위생

- 수도물은 지하수 취수가 일반적이며, 정수설비 불량 및 도심 난개발로 수질 오염 우려가 있음. 특히 아메바 등 세균 오염, 석회질 함유 등의 이유로 음용에 부적합하며, 구강세척 및 양치를 하는 경우에도 병입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대중음식점에서도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보다는 병입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 팁문화

- (식당) 관례적으로 총 금액의 10% 내외를 지불하며, 통상적으로 계산서에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기도 하므로 확인 필요(명세서에 Propina로 표기)
- (호텔) 방청소 및 벨보이(포터) 팁은 1US\$ 또는 현지화 10개찰 내외가 적당

□ 무역관 오시는 길(Google 좌표 14.599035, -90.513176)

- 무역관은 Zona 10(제 10구역) 중심가에 위치한 ATLANTIS빌딩 6층에 입주해 있으며, WorldBank, 베네수엘라대사관, Maersk 등 주요기관, 기업들도 위치
 -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택시로 15-20분 소요되며, 공항택시(AirporTaxi) 기준 요금은 현지화 70개찰 수준(정액제)
- 주요 호텔*들이 무역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근처에 체류하는 경우 도보 방문도 가능하나, 보행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삼가는 것이 안전
- * (1블럭) Real Intercontinental, Clarion Suite / (2-3블럭) Westin Camino Real, Holiday Inn 등



□ 기타

- (시간대) UTC - 6:00 중앙아메리카 시간대에 편입되어 있고 일광절약시간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한국보다 15시간 늦음
 - * (예시) 한국 오전 9시 = 과테말라 전날 오후 6시

-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8시 ~ 오후 5시가 보편적이거나 기업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관공서는 오전 8시 ~ 오후 4시 또는 오전 9 ~ 오후 5시, 은행은 지점에 따라 운영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 * Banco Industrial Fontabella지점 월-토 10:00 - 19:00 / Europlaza지점 월-금 09:00-18:00

- (전압) 이용전압은 110V·60Hz이며, 플러그는 A 또는 B형이 보급되어 있어 11자형 변환어댑터를 지참하는 것이 좋음
 - 현지 호텔에도 일정량을 비치해두고 있으나, 한국의 F형(220V용) 보다 구경이 작은 C형용 어댑터여서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공휴일(2020년 기준)

날 짜	공휴일	날 짜	공휴일
1월 1일(수)	신 년	9월 15일(화)	독립기념일
4월 19일(일)~4월 22일(수)	부활절(매년 변경)	10월 20일(화)	혁명기념일(1944년)
5월 1일(금)	노동절	11월 1일(일)	만성절(한식)
6월 29일(월)	국군의 날	12월 25일(금)	성탄절
8월 15일(토)	성모승천일(과테말라시만)		



5. 주요 연락처

☐ 항공사·여행사

구 분	업체명	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항공사	UNITED	(TEL) +502-2385-9610	AVIANCA	(TEL) +502-2470-8222
	DELTA	(TEL) +502-2302-5799	COPA	(TEL) +502-2385-5500
	AMERICAN	(TEL) +502-2278-7000	AEROMEXICO	(TEL) +1-800-835-0269
한 인 여행사	제트여행사	(TEL) +502-2383-4324 / (Email) taeshim62@hotmail.com		
	샬롬여행사	(TEL) +502-2439-7706 / (Email) shalomlingua@hanmail.net		

☐ 렌터카·콜택시

구 분	업체명	연락처
렌터카	HERTZ	(TEL) +502-2314-4444 (URL) www.rentautos.com.gt (특징) 공항 및 WESTIN호텔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 임차, 반납 등 이용 편리
	AVIS	(TEL) +502-2324-9000 (URL) www.avis.com.gt (특징) 공항 및 과테말라시티 중심가에 3개소가 있으며, Zero Deductible 등 폭넓은 옵션 제공
	스마일렌터카	(TEL) +502-2432-2468 / 4250-1803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현대렌터카	(TEL) +502-5353-1508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콜택시	TAXI AMARILLO EXPRESS	(TEL) +502-2470-1515 (요금) 4.8계찰/km, 정차 시 33초 단위로 0.8계찰 가산(최저요금 : 현찰-25계찰, 카드-35계찰) (장거리요금) 안티구아 250계찰, 빨린 200계찰 등 (특징) 과테말라 최대 규모 콜택시기업(자회사로 Verde Express社 보유)



□ 비상연락망

○ 과테말라무역관

- (주소) 13Calle 3-40, Zona 10, Edificio Atlantis, Oficina 605, Guatemala
- (TEL) +502-2298-0000

직 위	성 명	연락처
관 장	안 성 희	sh_ahn@kotra.or.kr (핸드폰) +502-4707-1983
스페셜리스트	장보람	mariachanghan@kotra.or.kr

○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5Avenida 5-55, Zona14, Edificio Europlaza, Torre3, Nivel 7, Guatemala
- (TEL) +502-2382-4051 ~ 5 | (긴급전화) +502-3368-9333

○ 사건·사고 관련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경찰청(범죄신고) Policia Nacional Civil	110 또는 120	앰블런스(의용) Bomberos Voluntarios	122
교통경찰(PMT) Policia Municipal de Transito	1551	앰블런스(국영) Bomberos IGSS	128
관광경찰 Policia de Turismo	+502-2361-6052	앰블런스(시영) Bomberos Municipales	123
Roosevelt병원(국립)	+502-2321-7400	앰블런스(민간) Alerta Medica	1711
Centro Medico병원(사립)	+502-2279-4949	앰블런스(적십자) Cruz Roja	125

○ 한인 운영 클리닉

구 분	업체명	연락처
가정의학과	박상민클리닉	(주소) 36 Avenida 1-74, Centro Comercial Mateo Xpress Local 7, Zona 7 (TEL) +502-2439-8225 (운영시간) 월-금 09:30-18:30 / 토 09:30-14:00
	세브란스클리닉	(주소) 2da Calle 33-60 Col. Toledo, Zona 7(향이 옆 노란 2층 건물) (TEL) +502-2233-7251 (Cel) +502-3000-3086 (운영시간) 월-금 10:00-19:00 / 토 09:00-15:00
치 과	미소치과	(주소) 32 Avenida 1-36, Utatlan1, Zona 7 (TEL) +502-2439-5445 (운영시간) 월-금 09:00-17:30 / 토 09:00-15:00



□ 주요식당

종류	상호명	연락처	비 고
한식	유명한집	(주소) 1 Calle 35-09, Zona 7 (TEL) +502-2433-9788	탕요리 전문
	한국관	(주소) 2 Calle 33-14, Zona 7, Calzada Mateo Flores (TEL) +502-2439-5927	숯불갈비 전문
	향 이	(주소) 2 Calle 33-40, Zona 7, Calz. Meteo Flores (TEL) +502-2233-7210	한 식
	중국집	(주소) 36 Avenida 1-59, Zona 7 (TEL) +502-2212-5639	한국식 중식
	명 동	(주소) 11 Calle 5-08, Zona 9 (TEL) +502-2441-5266	한식·중식 및 숯불갈비 전문
	순 풍	(주소) 32 Avenida 1-34, Zona 7 (TEL) +502-5577-7686	순대국 전문
	과테콜	(주소) 46 calle 6-87 Zona 12 Col. Monte Maria 3 (TEL) +502-2477-2638	한 식
중식	Lai Lai	(주소) 12 Calle 5-27, Zona 9 (TEL) +502-2331-6507	정통 중식
	PF Chang	(주소) 12 Calle 2-25, Zona 10 (TEL) +502-2376-5400	미국식 중식
현지식	Hacienda Real	(주소) 5 Avenida 14-67, Zona 10 (TEL) +502-2380-8383	과테말라식 숯불구이 전문
	Donde Mikel	(주소) 6 Avenida 13-32, Zona 10 (TEL) +502-2363-3308	스페인식
	Palermo	(주소) 4 Avenida y 12 Calle, Plaza Fontabella, Zona 10 (TEL) +502-2336-7129	아르헨티나식 아사도 전문

6. 유용한 현지표현

- 안녕하세요?(아침인사) - Buenos dias(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세요?(점심인사) - Buenas tardes(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세요?(저녁인사) -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 감사합니다. - Gracias (그라시아스)
- 실례합니다. - Con permiso (콘 페르미소)
- 계산서 주세요. - La cuenta, por favor (라 꾸엔따, 뽀르 파보르)
- 물 좀 주세요. - Agua, por favor (아구아, 뽀르 파보르)
- 얼마입니까? - Cuanto cuesta? (꾸안또 꾸에스타?)
- 메뉴 주세요 - La carta, por favor (라 까르따, 뽀르 파보르)



7. 주요 관광지

1. 안티구아(Antigua)



- 1543년 스페인 침략기에 건설된 옛수도로, 1773년 대지진으로 파괴되면서 현재의 과테말라시티로 이전
- 성당 등 주요 건축물들이 중세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제1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 과테말라시티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2. 아띠플란호수(Lago de Atitlán)



- 과테말라시티에서 147km, 해발 1,562m에 위치한 칼데라호
- 3,000m 이상의 화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체게바라가 풍경에 반해 혁명을 잇고 머물렀다 하여 유명세를 탄 곳
- 특히 호수 주변 부락을 배로 이동하며 인디오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3. 띠칼(Tikal)



- 과테말라 북쪽 페텐(Peten)주에 위치한 마야유적지로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 유적지는 3천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건조물로 구성
- 버스로는 12-14시간, 항공편으로는 1시간 소요

4. 빠까야화산(Volcan de Pacaya)



- 해발 2,562m의 활화산으로, 경우에 따라 흐르는 용암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
- 등반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말을 타고 등산도 가능
- 과테말라시티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

5. 리오둘세(Río Dulce)



- 과테말라 북쪽 이사발(Izabal) 호수 인근에 위치, 천혜의 원시림과 자연풍경을 간직한 관광명소
- 이사발호수, 산펠리페성, 흑인정착촌인 리빙스톤 등이 주변의 주요 관광지임



V. 상담시 참고사항

□ 과테말라 상거래 참고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 제조업이 GDP의 18%를 차지하나 섬유봉제업, 플라스틱제조, 식품가공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따라서 기타 소비재, 자본재, 원부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임. 다만, 수입상들은 비즈니스 초기단계에서 시장조사, 소비자 기호 파악 등을 위한 소량구매가 일반적인 만큼, 처음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소량 오더를 수용하되, 향후 설득을 통해 거래량을 키워가겠다는 자세가 바람직
- 과테말라의 많은 업체는 금융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L/C 개설을 회피하며 T/T 거래를 선호(선금 30%, 선적 후 70% 등). 이 경우, T/T 송금 후 수출 업체는 수입업체에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하며, L/C 거래 시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 개설이 안전
- 중미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많은 수입업체는 인근 중미국에도 판매장이나 거래선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가 필요
 - 다만,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과거 스페인 독립 직후 중미연방의 수도였던 관계로 중미지역의 만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인접 국가와는 심적으로 가까지 지내나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과테말라는 전체인구의 53.7%가 빈곤층(극빈층 11.5%)으로 구성, 중산층이 취약하고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비구조 양극화가 특징임. 이에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서민층을 따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상류층의 경우도 한국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친환경, 고품질 추구 등의 가치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현지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 과테말라는 전체 인구의 40%가 마야 후손 원주민(인디오)이며, 혼혈(라디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면적으로는 인종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지만, 인디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질문 혹은 코멘트(‘당신이 (순수) 백인이냐, 혼혈이냐, 인디오냐, 마야인이냐’ ‘과테말라의 인종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등)는 삼가야 함

2) 상담 이후 후속조치 시

-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 약속이나 거래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약속시간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의 진의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중미지역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너 또는 의사 결정권자 집단과 실무자 집단 간 의사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오너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이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에 없는 시간이 많아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실무자가 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김. 이에, 사절단 이후 교신 시에는 무역관 담당자를 참조 하여 무역관 직원이 별도로 접촉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www.kotra.or.kr